



#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21년 3월 15일

제 41 호

• 발행인: 박찬숙 • 편집장: 김성길  
• 편집인: 채영신 이현우 황인우 유지현  
• 주 소: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9-1102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9025-4663

## 클럽 창립 30주년 회보 창간 10주년 축하

### 2021년 정기 총회·제10대 박찬숙 회장 취임식 개최

부회장 이계진(수석) 김채영 이후재 김상준 손석기 원종배 감사 박민정 조건진 사무총장 채영신 운영위원 김규홍(책임) 외 16명 편집위원 김성길(편집장) 외 6명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3월 5일 명동 퍼시픽호텔

2021년 정기 총회 겸 제10대 박찬숙 회장 취임식이 3월 5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 퍼시픽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오후 6시 식사 후 2층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7시부터 시작된 정기 총회는 차인태 회장의 개회 선언과 클럽 활동 동영상 상영에 이어 2020년도 감사 보고와 2021년도 사업 계획, 차기 회장 선출과 집행부 구성, 신규 회장 이취임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자 채영신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지침과 총회 의결 정족수 관계로 행사 개최를 공지하지 못하고 진행한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 감사 보고에서 이후재, 박민정 감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회원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차기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9대 차인태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0대 회장에는 고문진 만장일치로 시사 진행자와 국회의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중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클럽에 기여해온 박찬숙 전 부회장이 선임되었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아나운서클럽에서 자주 만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격려사에서 황우겸 고문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여걸을 맞아 아나운서클럽의 도약기를 기대한다.” 전영우 고문은 “아나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언론인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신입 회장의 경력이 자랑스럽다.” 김동건 고문은 “선배를 존경하고, 동료애를 아끼고 후배를 사랑한다면 우리 클럽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 집행부는 부회장에 이계진(수석)·김채영·이후재·김상준·손석기·원종배, 감사에 박민정·조건진, 사무총장에 채영신, 운영위원에 김규홍(책임)·성선경·정홍숙·송현식·정영희·전옥수·백연숙·차기정·이형균·이병혜·이숙영·지영서·김성수·신은경·성연미·이금희·손범수, 편집위원에 김성길(편집장)·채영신·이현우·황인우·권혁화·유영미·유지현 등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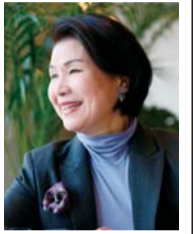
사진 3면에

## 취 / 임 / 사

### 바로 지금, 우리 함께 아나운서클럽에서!

(사)한국아나운서클럽 박찬숙 회장

1945년 경기도 수원 출생  
1968년 숙명여대 국문과 졸업  
1968년 문공부 공채 1기 아나운서로 KBS 입사  
1976년 최초 여성 뉴스 앵커, (라디오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생방송 심야토론> MC  
1992년 동서문학상 신인상 수상, 98년 소설집 <사막에서는 날개가 필요하다> 발간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공공디자인문화포럼 공동대표 역임  
2011년부터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두 차례 사진전 개최



아나운서클럽 선후배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그리운 것은 자유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 눈 맞춤 하며 주고받는 다정한 말, 늘 그럴 수 있다고 편하게 생각했던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 한 잔의 커피, 한소끔의 수다가 무척 그리워집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우리말이 제2외국어로 방송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되찾고, 자랑스러운 우리말로 방송되는 마이크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80년대 후배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대선배들께서 남산 자락 한식집 '동심'에서 모여 시작된 모임이 40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05년 사단법인으로 몸을 갖춘 아나운서클럽의 소중함은 이 위기 속에서 절절한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오늘은 아나운서클럽회보 창간호가 발간된 2011년 3월로부터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선배 존경 후배 사랑, 한 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다'라고 창간호에 쓰여진 목표처럼 회원간 친목을 위해, 방송 문화 진흥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또 한번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 현장을 경험하고 위로가 되는 따스한 말을 가다듬어 온 아나운서클럽 선후배 여러분!

코로나19로 부득이 제한된 인원의 선후배님들 모시고 하는 만남이 아니라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할 날이 곧 올 것이기에 긴 말씀은 구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황금, 소금 무엇이 귀한 금인가? 이 질문의 답은 '지금!' 이 말이 우스개로 들리지 않습니다.

선후배 회원 여러분!

'바로 지금', 서로 마주 보고 오래된 친구에게 하듯이 약속 하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매력적인 미소로 아나운서클럽 울타리 안에서 자주 만나기를 약속해 주십시오. 가장 매력적인 아나운서클럽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헌정회 회원,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숙 씨가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유경현  
헌정회 복지장학재단 이사장 김병태  
헌정대상 발전후원회 회장 김문기  
헌정회 고문 변웅진  
헌정회 사무총장 황학수



대한민국헌정회  
大韓民國憲政會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창립 30주년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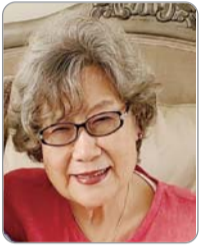


신춘휘호新春揮毫 청무성廳無聲

여송與松 윤영중 (전 KBS, 서예가)

들리지 않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마음의 귀, 이성의 귀, 영혼의 귀를 가지고  
 '심오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 <예기禮記>의 '곡예曲禮' 중에서

1953년~1964년 KBS 아나운서  
 2000년부터 서울 인사동에서 월정 정주상 선생에게 사사  
 월정묵연회와 국제난정필회 회원으로 세계각국에서 전시



기념사

회원들 적극 참여로 입신양명立身揚名 하니 창립자로서 흐뭇해

동심회 → 청람회 → 아나운서동우회 → 한국아나운서동우회 → 한국아나운서클럽 →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황우겸 고문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 아나운서클럽도 어느덧 창립 30주년! 과거와 현재가 빛이 되고 만발하여 클럽의 연륜이 무거워지고 원숙하여진 것 같다. 어렵게 심은 뿌리가 잘 내리도록 가꾸고 정성을 다하면 뿌리는 깊게 자리 잡아 무럭무럭 잘 자라기 마련인가! 30년 전통과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 이 클럽의 창설 발기인으로서 30년 연륜이 남다르게 느껴진다.

KBS 남산 방송국 시절, 나는 선망의 직업인이었지만 '인기만 마시고 못 산다'며 천직으로 알았던 공무원 아나운서직을 미련없이 하직, 하산下山하였다. 하지만 서울 정동에서 시작해 피난지 부산, 다시 정동에서 남산으로 전전하며 방송에 심취해 살던 선 후배들의 옛 정情이 그리워, KAL(대한항공) 임원인 자유의 몸으로 아나운서 모임을 선도하였다.

남산 아래 '동심'이라는 한식집에서 자주 맞대고 모임을 이어오다가 「동심회 同心會」를 시작으로 「청람회靑藍會」를 거쳐 80년대 후반 아나운서 동기同期인 강찬선 KBS 이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배덕환 아나운서에게 행정을 맡겨 「아나운서동우회」를 만들었다.

이어 1991년 3월, 본인이 제2대 회장이 되면서 강찬선 명예회장, 임택근, 전영우 부회장, 박로설, 송영규, 이영렬, 한경희 운영위원, 오남열 감사, 정경래 간사 체제, 41명의 회원으로 틀을 갖추어 「한국아나운서동우회」로 정식 출범하였다.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던 시절,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나의 사무실에선 여직원이 FAX나 일반 전화로 일일이 우리 모임의 각종 연락과 문서를 챙기는 등 일이 많았다. 당시 나의 개인 사무실 문에 달아 놓았던 초창기 「아나운서동우회」 간판을 지금도 기념으로 갖고 있다.

동심회 때부터 간사로 나를 도와준, 지금은 제주에 살고 있는 정경래 회원을 잊을 수 없다. 뒤이어 오랫동안 사무국장 겸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대소사를 처리하고 회무의 기틀을 정립한 김규홍 현 책임 운영위원과 박민정 감사가 숨은 공로자이다. 박민정 감사는 초창기 기록 등 서류들을 들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강남구 청담동 개인 APT 주소로 전전하며 18년간 어려운 살림을 꾸리다가 현재의 채영신 사무총장에게 넘겨주었다.

30년 역사의 기둥 역할은 임택근, 전영우, 박종세, 최만린, 김동건, 임국희, 차인태 등 역대 회장과 강영숙, 최계환, 전용덕 고문, 그리고 적극 참여한 전 회원이다. 아나운서클럽의 발전은 회원 개개인의 적극적 참여가 기본이 되었으며, 회원의 의무인 연회비의 성실한 납부가 바탕이 되었다.

특히 우리 클럽의 중흥 발전의 견인차는 제7대 김동건 회장으로, 아나운서클럽상 트로피를 만든 한국 대표 조각가 최만린 회장을 도와 클럽을 사단법인 화시켰고 회보 발간이란 큰일을 해냈다. 거금 1억 원을 기탁해 장기법상을 제정한 이계진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상준, 원종배 부회장, 감사와 부회장을 지내며 물심양면으로 참여하는 성선경 운영위원, 클럽의 홍보와 회보 편집을 맡아준 황인우 초대 편집장 등 여러 임원들의 뒷받침이 크다.

오랜 연륜을 지닌 선배 아나운서는 백과사전과 같은 상식과 지식의 소유자이다. 세계에 으뜸가는 우리말을 지키는 언어 도사이고 무엇보다 자유, 평화, 진실의 소리를 전파를 통하여 전하는 언론 보도의 선봉자들이다.

특출한 인격체의 사람들이 결집한 우리 클럽은 이념이나 이해관계로 모인 조직체가 아니다. '한 번 아나운서는 영원하다'라고 자주 강조하였듯이 '선배 존중, 후배 사랑'의 오랜 전통을

가진 특별한 조직이며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단체이다.

작년 제6회 황금메아리상 시상식에서 KBS 백승주 아나운서가 수상 소감으로 뜻있는 말을 하였다. "퇴직한 후에도 돌아갈 베이스캠프 같은 아나운서클럽이 있어 마음 든든하다."라는 말을 듣고, 나는 '우리 클럽의 존재 가치가 높고 평가받고 있구나,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되어 자위自慰하였다.

이제 3월 5일자로 제10대 회장으로서는 중책을 맡은 우리 클럽의 자랑이며 중진인 전 국회의원 박찬숙 회장의 취임을 우리 모두 축하하고 응원하며, 모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한국아나운서클럽이 한 단계 더 높고 굳건한 발전을 지속하길 기원한다.

글 / 황우겸 (전 KBS) 고문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김규홍 한경희 김중휘 이광주 김두석 이철원 김승한 최두현  
 유필기 김재영 김인권 정경수 오남열 최만린 박찬숙 김주환 박종세 전영우 이병열  
 김무중 전경래 우재근 이수열 전용덕 황우겸 강찬선 최계환

마스크 벗고 '살갓'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축사

아름다운 별처럼

김병래 시 그림 (전 KBS, 시인, 수필가)

한국아나운서클럽 창립 서른 돌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보내주는 축하의 박수 소리가  
힘차게 솟아오른 아침 햇살 같다

30여 년 전 작은 동심회로 출발한 이래 그간  
우리들의 지극정성으로 이제 큰 탑을 세웠어라

산과 들의 꽃들은 한 시절을 풍미하고 떠나지만  
방송에 피어있는 아나운서의 꽃은 영원불변하다

아나운서의 꽃에는 일제 때 우리말과 문화를 지킨  
선배님들의 열이 담겨있고 지금도 국민의 벗으로  
꿈과 희망과 밝은 미래를 이어주는 향기가 가득하다

아나운서클럽은 오늘도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전통과 격조 높은 품위로  
새로운 방송 문화를 창달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바람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 아름답듯 우리들의 꽃도  
온갖 시련과 난관의 흔들림 속에서도 더욱 굳건히 피어나  
그 위상을 만방에 펼쳐 나가리라

아나운서클럽 창립 30주년에 즈음하여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을 바라보며 축하의 노랫 부른다

‘한 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이여라  
빛나라 빛나라 아름다운 별처럼’



1969년~2004년 KBS 아나운서  
서울미술관 공모전 특별상 · 부산비엔날레사상대회 특선  
한일중견작가전 · 김해비엔날레 국제미술제 출품

“  
건강한 삶을  
드립니다  
”

수소수의 특징  
덕유산자락 청정 지역인  
경남 함양군 서상면 소재의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암반수로  
수소수를 만들었습니다.

이주수경·수경산업  
SUGYUNG Inc.  
경남 함양군 서상면 추하뒷길 18  
<https://smartstore.naver.com/suhydrogen>



수소수수  
500ml



덕유산 수소소워터  
350ml



Zwater  
오렌지향 레몬향 저용량



수소케어 마스크팩



화장용  
수소클렌징 티슈



클렌징 수소물티슈

##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는 2011년 3월 11일 제7대 김동건 회장이 이해옥 회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창간했다. 전 대한민국서예문인화원로총연합회 회장 우전 맹관영 회원의 제호題號 아래, 전영우 고문과 이규향 회원의 「우리말 다듬기」에 이어진 김상준 부회장의 「힘내라 한국어」, 방송 역사의 주역을 조명하는 「초대석」, 화제의 인물을 소개하는 「중인」, 다재다능한 활약상을 담은 「회원 동정」, 현역이 직접 참여하는 「방송가 소식」 등 8면으로 구성되어 연 4회, 2,000부씩 발행한다.

편집진으로는 초대 황인우 편집장을 비롯해 정경래·김규홍·이혜옥·황량·채영신(전 KBS), 박민정·이형균·이현우·김창옥(전 MBC), 유지현·윤지영(전 SBS) 회원과 아나운서협회 간사들이 활동해왔다. 신임 김성길 편집장은 1985년 KBS춘천 입사, 1991년 PD로 전직해 인천AG주관방송 대표, KBSN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중앙대 언론학 박사로 중대 대학원, 한체대 대학원 등에서 강의했으며 <방송진행소프트> <스포츠콘텐츠의 이해> 등을 출간했다. 한국어 교사, 궁궐문화 해설사로 활동 중이다.

### 든든한 우리말 지킴이, 바른 정보의 전달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봄, 아나운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애써 오신 아나운서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방송은 국민의 애환을 전달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나운서 여러분은 방송의 중심에서 국민의 언어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쳐 왔으며, 아름답고 바른 말의 본보기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외래어 사용과 줄임말 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지난 30년간 한국아나운서클럽이 우리말 지킴이, 바른 정보 전달자로서 자리 매김해 왔듯이, 앞으로도 더 품격 있는 방송 언어 실천에 구심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가 앞으로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 아나운서 세계의 너른 바탕이 되기를



박성제  
한국방송협회 회장

방송에서 쓰이는 '말'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올바른 방송 언어 실천의 중심에는 아나운서 여러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 최종 전달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각 방송사에서는 전문가들과 협업해 올바른 방송 언어의 표현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표현 하나를 바꿀 때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방송 언어에 대해 고민할수록 그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비단 방송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모든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바른 표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방송협회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송 언어를 가꾸기 위해 논의하고 토론해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클럽회보를 통해 아나운서로서의 자부심을 되새기는 시간이, 여러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너른 바탕이 되고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 모두의 정보지, 역사 기록지로 거듭나기를



이장춘  
춘추동방송 운영자

한국아나운서클럽 30년! 회보 창간 10년! 국내외, 전·현직 아나운서들의 마음을 모으고 역사를 쓰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세대를 어우르고, 방송사의 벽을 넘어 뜻깊고 화기애애하게 살아온 그 세월! 회보 창간은 살아 숨쉬는 아나운서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모두의 마음을 연결해 주었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연 4회, 10년간 40회 회보를 넘기노라면 지난날 우리들의 발자취가 담겨 있어, 추억을 되살리게 합니다. 단어마다, 문장마다 정성이 넘치고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단체, 기관의 회보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 독특함과 충실함, 다양함, 정겨움. 필자는 회보를 받을 때마다, 아나운서들의 모습과 운영진의 노고를 머리에 떠올리며, 고마움을 새기곤 했습니다. 그 회보를 필자가 운영하는 춘추동방송에 올릴 때마다 보람을 느꼈고 지금도 그 회보를 되돌아봅니다.

한국아나운서클럽이여, 영원하시라!

아나운서클럽회보여! 모두의 정보지, 역사의 기록지로 거듭날지어라!

### 아나운서임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회보



이병혜(전 KBS)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먼저 발간 10주년이 되기까지 뒤에서 애써주신 선배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꼬리표처럼 늘 나를 따라다니는 아.나.운.서.라는 이 네 음절은 언제 어디서 불리든지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고 지켜주고 가꾸어준 선배와 후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사 내 어느 부서보다도 끈끈하고 기강(?)이 확실하게 잡힌 조직이라 한때는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아나운서를 '쓰네, 마네'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는 후회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라는 선배님들의 그 말씀 한마디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외부 강연이나 발표를 할 때도 늘 아나운서 네 음절을 가슴속에 지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가 우연히 어찌다 모인 그룹 만남이나 상담사와의 사소한 전화 통화에서조차 "마치 아나운서 같으세요."라는 말을 들곤 했습니다. 아마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발음 조심, 단어와 어휘 선택 조심, 말조심까지...

이해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에서처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 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신경쓰면서, 험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말을 쓰려고 노력해왔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나운서클럽이고, 그런 분들의 인연을 이어주고 서로 잊지 않고 잊히지 않도록 회보를 만들어 보내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보를 받아보는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며 아나운서 클럽에서 오래도록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선배님들과 같은 우리말 지킴이가 되겠다



이형길  
KBS 아나운서실장

KBS 아나운서실에 걸려 있는 역대 아나운서 선배님들의 명단을 볼 때마다 그 무게와 깊이를 새삼 느끼고는 했습니다.

한국 방송의 개척자이자 인솔자였던 선배님들의 치열했던 노고를 잊지 않도록 저희 KBS 아나운서들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고운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선배님들의 업적은 전체 아나운서들의 큰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공영 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의 최일선에서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나운서에 대한 애정이 담긴 회보



박경주  
MBC 아나운서국장

회보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는 게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닐 텐데, 아나운서에 대한 애정 하나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클럽회보를 받아볼 때마다 새삼 아나운서라는 명칭을 제 이름 앞에 쓸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다짐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후배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단체로서 한국 아나운서클럽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선후배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장場



박상도  
SBS 아나운서팀장

입사 이듬해인 1994년 봄, 당시 이제진 국장님이 경기도 김포에 있는 장기범 선배님의 묘에 저희 동기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참배를 한 후 장기범 선배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배님께서 서슬이 퍼렇던 군사 독재 시절에 절개를 지켰던 참된 언론인이셨으며, 모든 면에서 그 당시 아나운서 후배들의 표상이었다고 회고하시던 모습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날 이제진 국장님은 점심으로 장어구이를 사주셨습니다. 결혼을 앞둔 제게 꼬리를 구워주시면서, “장어의 모든 정기는 꼬리에 있어. 이것 많이 먹어야 신혼이 아름다워지지, 하하.” 하시면서 “오늘 굽는 장어의 모든 꼬리는 상도가 먹게 해.”라고 말씀하신 덕에 아들 딸 낳고 27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도 결혼하는 후배 조정식 아나운서에게 장어를 사주면서 이제진 선배님 이야기와 함께 꼬리를 많이 먹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아나운서클럽 창립 30년, 클럽회보 창간 10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 아나운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른 언론인으로, 균형 잡힌 진행자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나운서클럽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셔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어 꼬리를 집어 주시던 그리운 선배의 손길처럼 클럽회보가 선후배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장으로 영원하길 바랍니다.

## 선배님들 응원과 격려로 후배들 활동 더 빛나



김윤신  
CBS 아나운서부장

아나운서 선후배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아나운서클럽회보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나운서의 길을 거쳐 가셨던 많은 선배님들, 여전히 열정적으로 활약하시는 선배님들의 소식은 후배들에게 반가움과 자긍심이 되고 후배들의 활동은 선배님들의 응원과 격려로 더 빛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방송을 사랑한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소식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가는 소식 속에 깊은 교감과 연대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선배님들 계셔서 든든하다



홍원기  
OBS 아나운서팀장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시면서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고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선배님들의 활약을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지면으로 만나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 따뜻한 시선으로 후배들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진심을 다해 챙겨주실 클럽 선배님들을 생각하니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올해는 몸쓸 감염병이 사라지고 선후배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한바탕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꽃소식 같은 클럽회보를 만날 수 있게 애써주셔서 늘 감사하고, 선배님들의 높은 식견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후배들을 위한 조언과 애정 어린 쓴소리도 잊지 말아주세요.

아나운서클럽회보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현역의 구심점으로 오랫동안 자리하시기를



나선홍  
TBS 아나운서팀장

2011년 3월 15일 창간한 아나운서클럽회보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철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발행된 회보는 우리나라 언론사를 대변하는 원로 선배님들, 그리고 다방면에서 맹활약 중인 전·현직 아나운서들의 소식을 고스란히 전하며 정보 교류와 방송 문화 창달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끌어주고 밀어주는’ 선후배 간의 든든한 구심점으로, ‘한 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 라는 구호의 생생한 역사적 증거물로 오랫동안 자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열정과 성실로 꽃 피워낸 세월이 존경스럽다



김성윤  
febc 편성팀장

아나운서클럽회보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임에 참석할 때나 회보를 접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한평생 언론인으로 살아오시면서 기쁨과 보람도 있었겠지만 ‘녹록지 않은 방송 여정,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지내 오셨을까?’ 하구요.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나눔과 가르침을 권면하는 모습 속에, 있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모습이 귀감이 됩니다. 모든 삶의 여정이 방송이요, 아나운서 클럽회보를 만드는 재료겠지요. 그래서 더욱 빛나고 향기를 더해 클럽회보를 읽는 이들의 영혼과 맘을 더욱 풍성하고 깊어지게 하나 봅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삶의 애기와 진중한 발자취가 깊은 울림으로 전해져 후배들에게 훈계와 바른길로 인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후배들도 잘 배우고 따라가겠습니다. 사명과 본분을 늘 새기며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방송인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늘 빛나는 모임으로, 좋은 회보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야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열정과 꾸준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아나운서클럽과 회보, 파이팅입니다!

## 후배들도 우리의 열과 역사 지키는 파수꾼 되겠다



이정민  
cpbc 아나운서

아나운서클럽회보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로 어려움이 큰 시절일수록 진리와 소망,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메시지를 흔들림 없이 전하는 아나운서의 소임은 막중합니다.

90년 넘게 이 땅에 방송이 이어져 오는 그 길에 선구자로서 선배님들이 계해주셨기에 ‘우리의 열과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자부심, 사명감, 열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로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든든한 버팀목으로 후배들에게 새 비전 제시



정수연  
BBS 아나운서부장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보여주고 계신 아나운서클럽 선배님들의 모습에 후배들은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합니다.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아나운서클럽회보가 10주년을 맞이했다니, 세월의 빠름과 함께 한결같은 감탄하게 됩니다. 클럽회보 초기에 후배들에게 직접 연락해, 정중하게 참여를 부탁하시던 모습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숨 막히는 방송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방송국이라는 조직 속 아나운서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서 아나운서클럽은 현역 후배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나운서클럽회보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아나운서클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지나온 10년의 선배님들, 나아갈 내일의 후배들



임경진  
JTBC 아나운서팀장

선배님들의 열정이 담긴 아나운서클럽회보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 방송의 틀을 만들고 이끄신 아나운서 선배님들의 역사와 추억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회보는 저희 후배들에게는 귀중한 방송 사료史料가 되고 있습니다. 회보를 통해 선배님들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으며 또 어떤 길을 내고 지나오셨는지를 보고, 저희 후배들은 아나운서의 내일에 대해 더 고민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송의 뿌리 역할인 아나운서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늘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활발한 회보의 발간이 저희의 일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많이 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회 | 원 | 동 | 정

초빙교수를 거쳐 2018년 전임교수가 되어

이지연 (전 CBS)

KBS <역사저널 그날 - 한국전쟁과 이산가족> 출연



KBS가 공사 창립 기념으로 기획해 3월 2일 방송한 KBS TV <역사저널 그날 - 한국전쟁과 이산가족> 특집방송에 출연했다.

1983년 당시 6.25 특집방송으로 기획되어 16시간 35분간 연속 생방송 기록을 세우며 138일간 이어진 <이산가족 찾기 특별생방송>을 진행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채영신 (전 KBS) 사무총장

롯데콘서트홀에서 임금수 가곡의 대향연 사회



3월 4일 오후 7시 30분 송파구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제9회 임금수 가곡의 대향연 사회를 담당했다.

채영신 사무총장은 2015년부터 임금수 가곡발표회 사회자로 활약하고 있다.

이영혜 (전 SBS)

홍익대 교양학부 전임교수 정년퇴임



2014년부터 홍익대 교양학부에서 화법을 가르치다가 2020년 말 정년퇴임 했다.

1977년 TBC에 입사한 이 회원은 언론통폐합으로 1980년부터 1985년까지 KBS에서 근무했고, SBS 경력직으로 입사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근무한 후 2013년 광운대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신은경 (전 KBS) 운영위원

인스타그램 사용법 온라인 토론 참여



페이스북 코리아가 3월 2일 개최한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안전한 인스타그램 사용 가이드' 기자 간담회에서 청소년 전문가 패널로 온라인 토론(사진 하단 왼쪽)에 참여했다.

청소년활동진흥위원장을 지낸 신은경 운영위원은 차의과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교수로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잘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라며 부모와 자녀의 팀워크를 강조했다.

부고

고려진 (전 TBC)

작년 12월 21일, 향년 78세



1962년 KBS 제주 아나운서를 거쳐 1964년 TBC로 이직해 <쇼파노 라마>, <가로수를 누비며>, <6대 가수쇼>

등을 진행했다. 1995년 홈쇼핑이 시작되며 쇼호스트로 진출, CJ39 쇼핑에서 2002년까지 근무하며 여성 최초 이사 직에 올랐다.

김국향 (전 KBS)

2월 14일, 향년 66세



1976년 KBS 제주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1981년 이후 서울에서 라디오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다 PD로 전직해 FM <동창이 밤았느냐> 등을 연출했다. 사회교육국, 국제국, 라디오국 등에서 근무한 뒤 2014년 정년퇴임 했다.

김태욱 (전 SBS)

3월 4일, 향년 62세



1987년 CBS 아나운서로 입사해 1989년 KBS를 거쳐 1991년 SBS 개국요원으로 스카우트 되었다.

<나이트라인> <생방송 투데이> 등을 진행했고 2020년 아나운서팀 부국장으로 정년퇴임을 한 후에도 러브 FM <기분 좋은 밤> DJ로 활동했다.

정희준 (전 KBS)

3월 10일, 향년 83세



1966년 KBS 입사, 1971년 스포츠 기자로 전직해 <스포츠 뉴스> 앵커로 활약했다. 스포츠국장을 지내고

1997년에 정년퇴임 한 후 한국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한 한국스포츠TV 이사, 남산 중앙방송국 동료들의 모임인 목척회 회장을 지냈다.

| 알림 |

고맙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 2021년 3월 10일, 입금순)

연회비

2020. 12. 15. 원종배 / 2021년 납부자

이성화 어호선 안주희 조건진 정홍숙 김현욱 박영선 김규홍 김성길 채영신 김병찬 최선규 김진형 박찬숙 김윤한 이형균 강미란 송현식 김재익 최평웅 최창섭 오미영 차기정 이후재 김상근 곽영신 김상준 황수경 성연미 이연영 변웅전 전우벽 박성준 박민정 지영서 오유경 이세진 최윤락 전찬희 류지현 이명희 황 량 성선경 이병열 권장수 민병연 반주원 이숙영 고창근 문무일 정영희 표영준 김성수 이선희 황인용 김수홍 김경숙 김채영 황인우 권혁화 양진수 윤희자 왕종근 박영웅 이해옥 이계진 황우겸 변웅전 방남순

후원금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 분



원종배(전 KBS) 30만 원



박찬숙(전 KBS) 340만 원



이형균(전 MBC) 10만 원



황수경(전 KBS) 20만 원



오유경(전 KBS) 20만 원



성선경(전 DBS) 50만 원



백연숙(전 MBC) 30만 원



문무일(전 MBC) 30만 원



차기정(전 CBS) 50만 원



황인용(전 TBC) 20만 원



김채영(전 MBC) 100만 원



변웅전(전 MBC) 100만 원



조건진(전 KBS) 24만 원



성연미(전 KBS) 40만 원

광고 유치

박찬숙 회장 대한민국헌정회 250만 원 (주)수경 150만 원

「인생자산」 구입비

축하합니다

김충식 (전 MBC) 4월 10일(토) 16시 옥수동성당 아들 세환 군 혼인  
송영빈 (포항fbc) 3월 13일 회사원과 혼인  
조정식 (SBS) 2월 21일 혼인  
박은영 (전 KBS) 2월 3일 득남  
변순복 (전 SBS) 1월 30일 딸 김수연 양 혼인

조의를 표합니다.

정희준 (전 KBS) 3월 10일 본인상  
전응덕 (전 MBC) 3월 4일 부인상  
김태욱 (전 SBS) 3월 4일 본인상  
임화숙 (전 KBS) 3월 1일 모친상  
김국향 (전 KBS) 2월 14일 본인상  
차경애 (KBS) 2월 7일 모친상  
고려진 (전 TBC) 2020년 12월 21일 본인상  
원창호 (전 KBS) 2020년 12월 11일 부인상

수고하셨습니다

배성재 2월 28일 SBS 퇴사  
장문상 2월 28일 부산CBS 정년퇴임  
도경완 2월 1일 KBS 퇴사  
김지원 1월 15일 KBS 퇴사



## 방 | 송 | 가 | 소 | 식

###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제19대 회장에 KBS 김보민



김보민(KBS, 사진) 아나운서가 차미연(MBC) 아나운서에 이어 제19대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2003년 공채 29기로 입사한 김보민 아나운서는 2020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KBS 아나운서 협회장 선거에서 96%의 지지를 받았다.

김보민 아나운서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MBC 차미연, SBS 정석문, CBS 유지수, OBS 김준우, TBS 송정애, febc 윤동진, cpbc 이정민, BBS 이효주, JTBC 송민교 협회장 등 9개 회원사가 함께 힘을 모으게 된다.



#### 김도연 박지원, 설 특집 <라떼는 TV> 진행

지난 추석 때 처음 선보인 <라떼는 TV>가 설 연휴를 맞아 2월 11일과 12일, 2회에 걸쳐 방송되었다. 김도연, 박지원 아나운서와 개그맨 서경석이 진행한 특집 아카이브 토크쇼 <라떼는 TV>는 과거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정도, 전도연, 김수미 등 소파 스타들의 옛 모습을 보여줘 관심을 끌었다.

#### 김선근, <노래가 좋아> 새 MC 돼

<노래가 좋아> 새 MC로 투입되었다. 김선근 아나운서는 첫 방송에서 “전임자 도경완 선배로부터 장운정 씨가 ‘콩이 아니라 팔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으라는 삶의 자세를 전수 받았다.”라며 입담을 과시했다.



#### 최영주 전 팀장, <아침 편지> DJ로 현업 복귀

공채 1기로 아나운서팀을 이끌던 최영주 아나운서가 Love FM <아침 편지> DJ를 맡았다. 스스로 아침형 인간이라 칭하는 최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현업에 복귀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 김선재, <책하고 놀자> DJ 맡아

김선재 아나운서가 Love FM <책하고 놀자> DJ를 맡았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종이책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책임감이 크다.”는 김선재 아나운서의 말처럼 양서의 길잡이로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 김수민, <TV 동물농장> MC로 발탁돼



김수민(사진 왼쪽 두 번째) 아나운서가 장예원 아나운서에 이어 <TV 동물농장>의 MC로 발탁됐다. 막내 김수민 아나운서는 <애니갤러리>와 <톡톡 정보브런치> <모닝와이드 - 파워스포츠> 등에서 활약 중이다.



#### 아나운서부, SNS 클럽하우스에 성경통독방 개설



아나운서부가 사순절(부활절 전에 행해지는 40일간) 기간에 청취자와 함께 성경을 읽는 방을 개설했다. 매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클럽하우스’라는 SNS를 통해 <CBS 아나운서와 함께 읽는 성경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5명의 아나운서가 방장이 돼 진행하고,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함께 10절씩 돌아가면서 낭독하는 방식이다.



#### 김민호 박지민, <뉴스안하니> 시즌2 맡아



아나운서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뉴스안하니>가 구독자 3만 5천 명을 돌파했다.

시즌2는 김민호, 박지민 아나운서가 주축이 되어 기존의 브이로그에서 벗어나 예능형 콘텐츠와 캐릭터로 여러 아나운서들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 전종환, <PD수첩> 공동 진행

전종환 아나운서가 서정문 PD와 함께 <PD수첩> MC를 맡았다. 기자와 <뉴스투데이> 앵커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예리하게 시사 이슈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창사 기념식에서 유진영 최지혜 수상



유진영, 최지혜 아나운서가 지난해 12월 28일 비대면 사내 공채 방식으로 진행된 창사 기념식에서 각각 격려상과 유공상을 수상했다.

유진영(왼쪽 사진) 아나운서는 ‘2020 한국 아나운서 대상’ 시상식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해 OBS의 위상을 높인 부분을, 최지혜 아나운서는 ‘뉴스 중심’의 메인 앵커로서 뉴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유튜브 <티다방>에 낭독의 방 개설



아나운서팀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봄밤의 향기로운 분위기를 선물하기 위해 유튜브 콘텐츠 ‘마음을 짓다, 낭독의 방’을 마련했다. 14인 14색의 매력을 담아 이병률부터 노희경, 정호승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가들의 문장을 들려주는 ‘낭독의 방’은 TBS 아나운서팀 유튜브 채널 <티다방>에 3월 8일부터 매일 밤 9시 순차적으로 업로드 중이다.

#### 시각장애인 위해 <유네스코 뉴스> 낭독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아나운서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능기부에 나섰다. TBS 아나운서들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월간 소식지를 직접 낭독한 <유네스코 뉴스>는 3월부터 웹진과 홈페이지에 제공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콘텐츠로도 만날 수 있다.



### 2021년도 직제개편과 인사이동 단행

을 1월 1일자로 서울 편성국이 편성1팀(팀장-김성운 부국장)과 편성2팀(팀장-김용환 부장)으로 나누는 등 대대적인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다.

맹주완 편성국장이 대전FEBC 지사장으로 발령받았고 남현용 아나운서가 뉴미디어팀장으로 승진했다. 전북 박준규 양육부장이 전북 방송부장, 본사 박진탁 아나운서가 창원 방송부, 본사 강세영 아나운서가 부산 방송부, 전북 김인수·부산 임지현 아나운서가 본사 편성2팀, 전북 강주연 아나운서가 본사 공연기획팀으로 전보되었다. 또 창원 김보령 아나운서가 울산 방송부, 대전 조안나 아나운서가 전북 방송부, 전북 최다슬 아나운서가 대전 방송부, 전남동부 양육부 최시원 아나운서가 전남동부 방송부, 대구 양육부 장한솔 아나운서가 대구 방송부로 발령받았다.



### 설특집 논스톱 찬양 메들리 방송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과 모이지 못하는 설 연휴 내내 음악을 들으며 평안과 안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논스톱 찬양 메들리 <와 닿는 찬양 가 닿는 복음>을 전국으로 송출했다.



### 안정적 송출 위해 관악산 송신소로 장비 이동

FM 송신기와 안테나 등 방송 장비를 교체하고 헬기를 통해 서울 관악산 송신소로 옮겼다. 이번 작업으로 더욱 선명하고 안정적인 송출이 가능해졌다.

### 장수연, 주말 4시 <행복한 오후> 진행

장수연 아나운서가 1월 16일부터 FM <행복한 오후>를 진행하고 있다. 마음에 담아두면 좋을 문장, 주제를 아는 차트 등으로 꾸며지는 이 프로그램은 주말 오후 4시부터 방송된다.

### 제11회 창작찬불동요제 비대면 개최



지난 설날, 제11회 어린이·청소년 창작찬불동요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이 비대면 방식으로 열려 이효주 아나운서 진행으로 BBS 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됐다.



### 송민교, 신설 프로그램 <더 메달리스트> 진행



송민교 아나운서가 JTBC Golf & Sports에서 4월 1일에 첫방송되는 <더 메달리스트>의 메인 MC로 낙점됐다.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국가대표 선수들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한국의 스포츠계를 책임질 유망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 김하은, 사내 봉사단에서 사회 공헌 활동 중

김하은 아나운서가 2월 23일 JTBC 사옥과 근처 아파트에서 코로나19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이 취소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꽃 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다. 김 아나운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출범한 중앙그룹봉사단의 창단 멤버이다.



###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대건별시' 진행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cpbc 라디오 문제풀이 대잔치 '대건별시'를 마련했다.

김지현 아나운서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진행하는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 들을 수 있다.

### 김슬애 제작 라디오 프로그램 영상으로 홍보

<감정식당>, <황우창의 음악정원>을 제작하는 김슬애 아나운서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음악, 영화를 만나다' '가사가 있는 음악' 과 '정원사의 음악여행' 등의 영상을 직접 제작하며 프로그램을 알리고 있다.



힘내라, 한국어! ①

## 시리즈로 풀어보는 한국어 'ㄴ·ㄹ'의 발음-6

연음법칙보다 부드러운 'ㄴ' 첨가가 어울리는 한국어들  
정열[정널] 작열[장널] 윤석열[윤성널] 이상용[이상농]



김상준(전 KBS) 부회장, 언문학 박사

2020년 6월호 본란에서 필자는 한국어 'ㄴ·ㄹ'의 발음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을 [윤성널]로 해야 된다고 했었다.

이후에 몇 분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서 다시 거론하려고 한다.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윤석열의 기쁠 열렸은 '렐'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본인의 이름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성널]로 불려왔고, 친구들도 [성널]로 불렀다는 것이다.

비슷한 형태의 보통명사로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는 작열灼熱은 [장널], 열띤 감정인 정열情熱은 [정널]로 발음하고 있다. 이외에 몹시 심한 더위인 혹열酷熱은 [홍널]로 발음한다.

이렇게 우리 말은 절음絶音을 한 뒤에 'ㄴ'음을 첨가한 말이 많다. 특히 고유명사에 'ㄴ' 첨가가 많아서 KBS 아나운서실장을 역임한 고 이명용 李明鎔 아나운서도 [명농]으로 했었다. 코미디언 겸 MC인 이상용李相龍 씨도 한자와 무관하게 발음은 [상농]으로 하고 있다. 맞춤법으로 논의가 있지만 쌍용그룹의 발음은 [쌍농]이 자연스럽다.

고전 한문도 'ㄴ' 첨가가 자연스러운 말이 많다.

'남녀상열지사'와 '학이시습지 불역열호'에 대한 발음도 예가 될 수 있다.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는 남녀의 애정을 주제로 한 노래라고 해서, 조선 전기의 학자들이 고려가요를 낮추어 부른 명칭이다. 여기서 '상열지사'는 [상열]보다는 [상널]이 자연스럽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말이다. 이때도 '불역열호'는 [부령널호]가 자연스럽다.

작년 2020년 12월 28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李建莅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이 선정됐는데, 대통령은 김진욱 연구관을 지명했었다.

그런데 이건리 후보에 대한 방송 뉴스는 거의 모두 [건니]로 표현했었다. 어문규범을 따른다면 연음법칙에 따라 [걸리]로 해야 한다. 그러나 관용에 따라 대부분 [건니]로 한 것이다. 인터넷에는 '김건래'라는 이름도 올라있다. 이 경우는 [걸래]와 [건내]가 가능한데, 관용을 중시하는 상식인이라면 [건내]로 할 것이다. 작년 6월호에서 필자는

'위진록, 최윤락' 아나운서도 [진녹, 윤낙]이 현실음이라고 소개했었다. 조선의 문인 박인로 朴仁老도 [인노]로 많이 한다.

그러나 음운첨가도 활영이 [찰령], 양양이 [양녕]으로 나는 등의 확대는 피해야 한다. 음소의 결합 상태나 연중言衆의 판단에 따라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

2017년 12월 2일 국립국어원에서는 발음 부문에서 복수발음複數發音을 인정한 어휘 몇 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음운첨가音韻添加로 'ㄴ'음 첨가를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강약強弱[강약/강낙], 감언이설甘言利說[가머니설/가면니설], 밤이슬[바미슬/밤니슬], 연이율年利率[여니율/연니율], 영영永永[영:영/영:녕], 순이익純利益[수니익/순니익]”

이밖에 경음화硬音化를 인정한 말로 “관건關鍵, 불법不法, 교과教科, 반값半-, 분수分數, 안간힘, 인기척, 점수點數, 함수函數, 효과效果” 등을 고시했었다.

발음법과 관련한 어문규범도 관용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상식 위에 균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